



이 천 용
「숲과 문화」 연구회

진귀한 식물의 보고 호주 왕립식물원

호주 개황

호주는 국토 면적이 770만km²로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으로 평균 고도는 300미터 미만으로서 세계 평균인 700미터와 비교하면 아주 낮은 편이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데 북부는 열대다우지역, 북동부 아열대지역, 남부는 온대지역, 대륙 중앙은 건조한 사막지대로서 전 대륙의 1/3이 열대지역이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동서 횡단이나 남북 횡단여행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다고 한다.

호주 인구는 1800만 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나라의 하나이며, 전체인구의 70% 이상이 해안가에 위치한 10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의 40%는 최근 이민은 이주민이며 원주민은 약 1.5%에 불과하다.

호주 대륙은 바다가운데 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섬으로 해안선

의 길이는 무려 36,735킬로미터이다. 5,500여 년동안 고립되었으므로 호주 특산 동물인 캥거루, 코알라, 주머니여우 등 유대류는 다른 동물과 생존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시적 생물상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호주의 국조인 앵무를 비롯한 700여 종의 조류와 소철야자나무, 그래스 트리(줄기가 목질화하는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 와라타(진홍색 꽃을 피우는 호주산 프로테아과 관목), 스텐트 데저트피(진홍색 꽃을 피우는 콩과 식물), 캥거루 발톱 등 20,00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수목으로는 호주에서 와틀이라고 부르는 아카시아가 약 700여 종되며 그외 유칼립투스도 수백 종 있다.

식물원 역사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은 태평양 탐험시 현재 시드니 공항이 있는 만을 발견하고 보타너만(식물의 만)으로 명명하였는데 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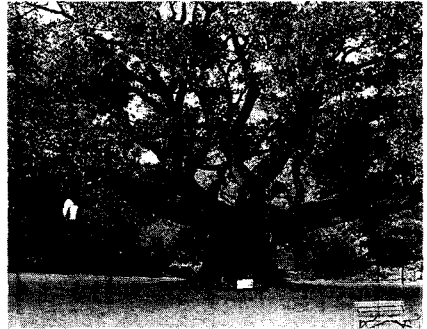
은 식물학자 벅크스와 스웨덴 출신 조수 솔렌더가 여기서 많은 미기록 식물을 수집하였기에 붙인 것이다. 1788년 탐험대장이며 뉴사우스 웨일즈의 총독이기도 하였던 필립 선장은 보타너만에 도착한 후 벅크스와 뜻이 맞지 않아 이곳을 떠나 북쪽으로 더 항해하여 쿡선장의 해도에 포트 잭슨이라고 써 있는 포구까지 갔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배가 해변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씨클러 케이로 알려진 조그만 포구에 정착하였다.

그 후 동쪽에 있는 토착민이 오칸마굴리로 부르는 포구에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근처를 첫 번째 농장으로 정하고 팜코브(농장포구)로 불렀다. 이 지역이 농업에 부적합함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1792년 필립 총독이 영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영국 왕실 소유지 및 시드니시의 부지로 확보해 둔 지역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팜코브의 토지를

◀식물원에서 본 시드니 항



▼장대한 무화과나무 (Ficus macrophylla)



개간하였던 죄수들은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상 식물원 설립의 선구자인 셈이다.

1809년 마콰리총독이 부임한 후 최초 농장지역을 포함한 이곳의 일부를 돌담과 말뚝으로 쌓아 외부와 격리시켰다. 그는 팜코브를 일주하는 도로(마콰리총독 부인의 도로)를 만들고 도로가 완공된 1816년 6월 13일을 왕립식물원의 창립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찰스 플레이저가 팜코브에 식물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후 찰스 무어 원장은 팜코브를 간척한 5헥타르를 식물원에 편입시켰고 해수방지 둑도 만들었다. 현 식물원은 무어와 그 후 취임한 메이든의 재임기간중에 이룬 것이다.

도메인

30헥타르에 달하는 현재의 식물원과 필립총독의 관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는 타용도로 사

용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남아 있다. 서쪽의 현 정부건물은 1845년 완공되었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터와 함께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이 빈 터도 식물원 직원이 관리한다. 매콰리 총독부인의 이름을 딴 지명과 뉴 사우스 웨일즈 미술관도 있다. 본래의 식물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수목과 원예식물 등 오래된 식물 볼 수 있다. 이 도메인은 항상 공개되며 레크리에이션, 스포츠행사, 야외음악회, 오페라 공연 등에 사용된다.

국립 식물표본관

국립 식물표본관은 뉴 사우스 웨일즈 식물연구의 중심기관으로 호주의 식생 동정, 분류 연구를 수행한다. 호주에 있는 대부분 동물이 다른 곳에서는 서식하지 않듯이 호주에 서식하는 많은 식물

도 독특하다. 지구상의 육상식물 25,000종 중 85%가 이곳에만 있는데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으며 발견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사우스 웨일즈의 식물을 가장 완벽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제일 큰 식물표본관 두 곳 중의 하나로서 벅크스가 수집한 식물을 포함하여 주로 호주에서 채집된 100만 종 이상의 표본이 있으며 호주 동식물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간행물을 발간한다. 식물학자들은 식물식별법, 식물과 관련한 조연과 상담도 한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며 학생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워크숍 등을 개설하고 있다.

살아있는 식물 전시장

시드니는 열대식물과 온대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온난한 곳이므로 식물원에는 7000여 종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같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흥미를 끄는 식물 뿐만 아니라 교육용, 화훼용 식물이 있으며 철따라 방문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화단에는 다양한 꽃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도 연구목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식민지 시대 초기에 유입하다고 생각하여 해외에서 도입한 식물도 있는데 장미식물원 근처의 감귤식물원이 그것이다. 또한 국내 및 태평양 연안국을 탐험했을 때 수집한 식물도 있다. 호주 왕립 식물원은 국내외의 개인이나 타 식물원과 식물 및 종자 교환을 계속하여 왔으나 지금은 야생식물만 수집한다. 수집된 식물의 배치와 구성은 이곳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종 안내문과 개개의 식물에 표시된 표찰은 유익하고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본관에 소장된 식물과 관련된 기록이 전부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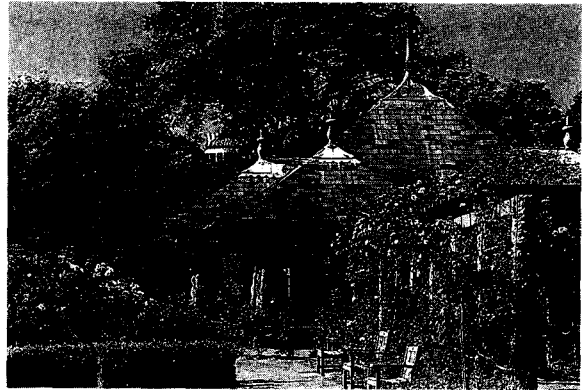
궁전 정원

궁전 정원은 1879~80년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길이가 244미터이며 예전의 정부 마굿간에서 현재의 국립 뉴 사우스 웨일즈 도서관 자리까지 길게 뻗어 있다. 중앙의 돔은 높이 64미터, 직경 30미터로 빅토리아 풍의 고풍스런 건물이며 중앙돔 아래에는 빅토리아여왕 상



◀ 궁전 정원에
연못

▶ 다양한 장미가
식재된 장미원



이 있었으나 1882년 화재로 인해 소실된 후 건물부지는 식물원에 편입되었다. 이곳의 특징은 필립 총독을 기념하여 건립한 대형분수와 원형의 움푹 패인 정원이다. 움푹 패인 정원은 1938년 유럽인들의 개척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궁전정원자리에 건설되었는데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을 전시하였다. 팜그로브(종려나무 숲)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궁전정원의 빅토리아시대의 짧은 전성기를 상기시켜주는 대리석상이 남아 있다.

장미원

중동, 그리스, 로마, 중국 등이 원산지인 장미는 2000년 이상 많은 국가에서 사랑 받는 정원용 꽃이다. 장미원의 전성기는 19세기 초 파리근교에 위치한 조세핀 보나파르트(나폴레옹의 부인)의 말메이송 정원에서 250종 이상의 장미를 수집하여 식재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꽃이 계속 피는 중국산 장미를 이용해 현대식 장미를 개발하였고 금세기초 파리의 라이레로제와 바가텔의 장미원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장미원은 식물원 직원이 설계 시공하였는데 반원형의 형상을 지니고 구 궁전정원자리에 있다.

장미원에는 현재 지붕만 있는

건축물과 파골라가 있는 이들은 정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축되었다. 장미원은 방문객들에게 장미의 역사와 다양한 품종들을 소개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현대 장미종은 색깔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좀더 오래된 품종인 차이나, 버본, 노이센트, 차장미 등도 볼 수 있다. 장미원은 교육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아름다움의 근본이다.

식약용원

약용식물은 지난 2세기 동안 기껏해야 채소용으로 쓰였다가 금세기 후반부터 향신, 염료, 약용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원예 및 장식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중세기 수도원내 진료 및 의료 목적으로 만든 식약용원은 작고 직사각형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금세기에 현대

식 장식용 식약용식물원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과거 기능적으로 꾸민 약용식물원을 모방하지 않았다. 약용식물은 영구적으로 배치된 것이며 방문객들에게 약용식물이 서식하는 기후와 역사 및 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약용식물원은 또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공모양의 태양시계와 방문객들이 접근하면 작동되는 분수도 있다.

과거 농장지역

팜그로브와 남쪽의 마콰리담길의 경계를 이루는 개울의 동쪽에는 식민지시대 처음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던 곳이 있다. 이 농장터에는 서로 평행으로 배치된 14개의 타원형의 밭이 있으며 밭사이로 길이 나있다. 이곳에서 작물 재배가 중단된 후에는 호주산 식물들을 해외로 반출하기 전에 임시

로 가식해두거나 수입식물을 적용시키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일부는 과거 농장과 관련된 것을 전시하는 정원으로 꾸며 있으며 일부는 식물분류 체계에 따라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 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단은 19세기와 20세기초부터 전해오는 잡다한 수목, 관목 및 약용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또한 열대산 철쭉과 식물과 베고니아 종이 있다.

마콰리담길과 북쪽에 위치한 타원형의 화단사이를 가로지르는 동서로 뻗은 길은 Spring Walk(봄의 산책로)으로 알려졌으며 사철진달래, 철쭉, 복숭아꽃나무, 등나무 및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로 가득 차있다. 이와 비슷하게 타원형 화단의 남쪽 길을 따라 가면 1876년 세워진 팜하우스(종려의 집)라고 불리는 식물원 유일의 온실이 있다. 현재 더 이상 종려나무가 살지 않으며 전시회용으로 이용한다.

같은 길을 따라 동쪽으로 조금 가면 한 쌍의 중국산 종려 리비스토나 치네시스(Livistona chinensis)가 있는데 1840년에 들여와 바다 쪽을 향해있는 중앙의 도로 양쪽에 식재되었다. 근처에는 엄청나게 큰 잎을 자랑하는 브라질산 크리스필럼 임페리알

(Chrysophyllum imperiale)이 있는데 1868년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알프레드 왕자가 심은 나무이다. 또 다른 특이한 나



◀식약용원

무는 마콰리 담길 가까이 중앙로의 오른 편에서 있고 카나리군도에서 자생하는 피코니아 엑셀사(Picconia excels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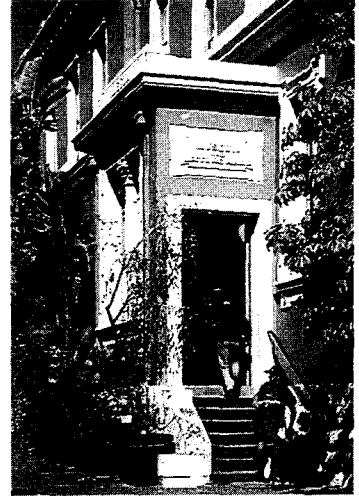
팜 그로브 (종려나무 숲)

팜 그로브는 식물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알려진 곳이다. 1851년 설립되었으며 140종의 종려나무가 있고 주위에는 봄에 밝은 오렌지색의 꽃을 피우는 크리베아 미니마타(*Clivea minimata*)가 있다. 또 리비스토나 오스트랄리스(*Livistona australis*)는 Cabbage Tree Palm으로도 불리며 시드니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이다. 이 나무의 부드러운 순은 초기 정착민들에 의해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잎을 떼어 모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초본 뿐만 아니라 식물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도

있는데 초기의 식물학자와 탐험가들에 의해 1820년대와 1850년대에 야생에서 채집된 종자와 식물을 재배한 것이다. 개척 초기의 식물은 식물학적, 역사학적 중요성 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군을 이루고 있다. 이들 중 1853년에 식재된 퀸랜드 카우리(*Agathis robusta*)는 식물원에서 가장 큰 나무이다. 기타 식물에 관한 정보나 설명은 나무 각각에 붙은 표찰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외 흥미로운 식물은 차나무(*Camellia sinensis*) 바로 옆에 있는 계피나무(*Cinnamomum zeylanicu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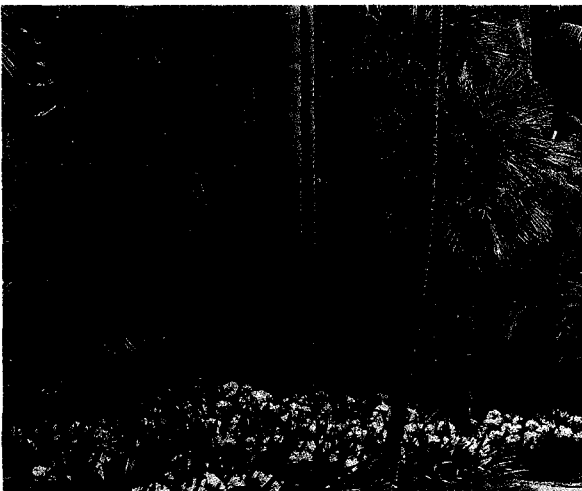
기타 편의시설

방문객 센터 및 구내매점은 최초 농장터의 남동쪽 구석에 위치한 약용식물관 건물내에 있으며 매일 9시 30분부터 4시까지 문을 연다. 식물원에서는 약 한 시간



▲방문객 센터

걸리는 안내인에 의한 식물원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10시 30분에 출발한다. 단체 방문자를 위한 특별안내도 예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퀘도가 없는 기차를 타고 수려한 경치를 즐길 수 있는데 이 기차는 요소에 정차하고 안내인이 설명을 한다. 방문객센터에서는 식물원 소개 책자, 호주의 식물, 원예, 정원관리 등 일반 서적과 시드니와 호주관광 안내서, 인쇄물, 기념품, 카드 등을 팔고 있으며 식물원 연차보고서도 얻을 수 있다. 식물원은 전문사진 촬영, 영화촬영, 결혼식, 음악회, 연극 공연 및 기타 기업체의 행사 등이 열린다. 식물원 식당은 첫 농장터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옥외에 공개되어 있으며 등나무로 덮인 발코니에서 호수와 정원을 바라볼 수 있어 시드니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종려나무 숲